

음악교과서 발전 방향 연구

김 미 숙*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육론을 토대로 음악교과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음악교과서 개발 방향과 음악교과서 개발 시 유의 사항을 살펴보고, 음악교과서의 발전 방향을 크게 구성 체제와 내용의 선정 및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구성 체제에서는 개념적 접근법을 기초로 한 단원 구성과 포괄적 음악성을 위한 자유로운 구성 방식을 제안하였다.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능동적 참여와 다문화적 접근법에 의한 새로운 제재곡 발굴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음악교과서, 교과서 개발, 음악교과서 내용

차 례

- I. 서 론
- II. 음악교과서 개발
 - 1. 음악교과서 개발 방향
 - 2. 음악교과서 개발 시 유의 사항
 - 3. 음악교과서 평가 기준
- III. 음악교과서의 방향
 - 1. 구성 체제
 - 2.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IV. 결론 및 제언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임강사

I. 서론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음악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해 준다. 이러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화 시킨 것이 음악교과서이다. 교과서는 단순히 교수·학습의 보조 자료가 아닌 철저히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보급되어 있어서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서 교과서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정 및 검정 교과서 체제 하에서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 제시를 기준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6).

음악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활용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음악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교과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교재이며 학교음악의 교수-학습과정에 사용되는 일차적 교재이다(권덕원 외, 2005). 교과서 이외에도 수업에서 필요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학습보조자료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수업에서는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교과서가 주교재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중요도가 큰 것은 교육환경이나 수업시수, 교사들의 업무과중에 의해서 다른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주는 자료가 교과서이고 음악교과서에서는 제재곡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학습내용과 활동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제재곡의 선정과 학습활동의 선정은 음악교육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권현정, 2009). 또한 제재곡 선정의 중요성은 “교재곡이 곧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

다(Reynolds, 2000, p. 31).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교재곡(제재곡) 선정의 중요성 및 미국화를 표방하면서 유럽 중심의 제재곡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민속음악과 현대음악을 자국의 음악교과서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문경숙, 2007). 한국의 경우도 이홍수(2001)가 그의 논문에서 제재곡의 한국화 방안과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곡 선정의 중요성과 다양화 및 질적 개선을 강조하였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바를 잘 나타내기 위한 학습자료 이므로 수업시간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악곡, 실제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오디오, 비디오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악기 등), 다양한 평가방법 및 도구 등이 포함된다(권덕원 외, 2005, pp. 157-158).” 이렇게 음악수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지 음악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음악교사의 수업효율성을 높이느냐가 음악교과서 저자의 과제이다.

한국의 음악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미국에서 음악교육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귀국하면서 미국의 음악교육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러한 음악교육론이 한국의 음악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포괄적 음악교육론, 개념적 접근법, 심미적 음악교육론, 다문화적 음악교육론 등이 여러 음악교육학자들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럽의 교수법들 - 달크로즈 교수법, 코다이 교수법, 오르프 교수법 등 - 이 음악수업 현장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한국학에 기초한 음악교육론이 음악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권덕원, 2004).

2009년 개정된 미래형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제작되는 교과서를 위해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입되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미국의 음악교육론을 살펴보면서 미래의 음악교과서의 방향을 유추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술논문과 음악교육학자들의 의견과 참고자료를 토대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의 음악교육론을 토대로 미래의 음악교과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음악교과서 개발

1. 음악교과서 개발 방향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학생의 학습능력 신장과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에서 창의·인성교육에 적합한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2007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학습능력과 창의력 신장에서 새롭게 인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 도서, 교육 현장의 적합성이 높은 교과용도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전인적 인간, 창의적 인간, 문화적 소양을 갖춘 품격 있는 인간, 공동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인간을 기르며 학생의 발달 단계와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량과 내용 수준으로 학습의 개별화가 가능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수업안 작성이 용이하며 다양한 교육 매체 활용이 가능한 내용 구성으로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고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방향인 학습자 중심은 창의성 발현과 탐구 과정 및 통합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나눔과 배려의 인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과 활동을 제시해야 하는데 음악교과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인성 교육의 핵심 요소이다. 대부분의 음악활동이 중창이나 합창, 중주나 합주로 이루어진 음악교과는 바람직한 인성 개발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내용 구성으로 흥미와 동기 유발 및 이해력 증진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음악수업은 타 교과와는 다르게 소리 중심의 표현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이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음악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잘 나타내어 수업과정이 미적 즐거움을 이루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임미경 외, 2002, p. 25).” 그러므로 음악교과서는 음악에 대한 이해 및 음악적 경험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음악의 광범위한 목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충분히 음악을 활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고(레온하드 외, 1992, p. 192), 학생들이 음악을 생활화하면서 음악적 독립심을 배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찬한다면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교과서 개발 시 유의 사항

(1) 교육과정 이념 실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도서 편찬 방향처럼 음악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음악교육의 기본적인 자료인 음악교과서로서 학습내용을 구상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이념이 제시하는 활동영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일관된 주제를 살리면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교재가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적합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여러 절차에 의해 검토한 것이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수업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수업의 길잡이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민경훈 외, 2010).

(2) 다양한 학습형태 고려

모든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성취기준에 입각해서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순차적인 음악지도단계를 모든 음악수업형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음악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Hinckley, 2000). 다양한 연령, 문화, 학습 형태를 고려해서 소수민족이나 대중들의 성장에 병행하여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그러한 내용을 음악교과서에서 실현해야 할 것이다.

(3) 실생활 적용

학교음악의 목표처럼 음악교과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생활에서 음악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학생 자신의 개별적 삶에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

(4) 제재곡 선정의 중요성

음악적 능력의 발달을 위한 음악교과서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제재곡의 선정이다. 제재곡의 선정은 음악교사가 음악수업에 임하기 전에 당면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서 교사는 제재곡의 선정에서 자신의 철학을 고려해야 한다. 음악교사들이 이루고자 하는 고상한 목표는 양질의 제재곡에서 달성할 수 있으며 단순히 청중들이 여흥을 위해서 음악을 즐기는 것 보다 학생들은 더 나은 제재곡 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Apfelstadt, 2000).

음악교사로서 주요한 목적은 개개인의 학생들이 경험과 정보를 통해서 음악교육을 받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고상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제재곡을 선택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폭 넓고 심도 있는 심미적 경험을 위해서 양질의 음악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잘 계획된 레퍼토리는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기르기 위한 우수한 음악교육과정의 뼈대를 형성한다(Reynolds, 2000).

(5) 흥미유발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에 민감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을 때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향상되고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Hoffer, 2001, p. 41).” 그러므로 음악교과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재미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2011년 음악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강조한 것처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매체를 제시하며, 특히 관련 자료는 학습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시각적 자료와 음악내용을 접목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며 학교 내외에서 누구나 다 함께 재미나고 즐겁게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음악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3. 음악교과서 평가 기준

음악교과서를 평가하고 분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외형적 체제와 내용적 체계로 분류하고 하위 단계에 가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평가하게 된다. 음악교과서 평가 기준을 “머셀과 글렌(Mursell & Glenn, 1987)은 교재의 내용, 전체적인 조직, 다른 교과와의 관련, 교육적 지시, 체제 및 참고 사항이라 하고 이홍수(1991)는 구성체제, 교재곡의 내용, 학습내용의 조직, 자기주도적 창작활동 포함이라 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표현 및 표기, 편집 및 외형체제, 독창성(권덕원 외, 2005, p. 158, 재인용)”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용어상의 차이로 외형적 체제와 내용적 체계에 합치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고려할 때 외형적 체제 중 구성 체제와 내용적 체계 중 내용의 선정 및 조직으로 범주를 함축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음악교과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2가지의 큰 틀로 초점을 맞추고 이 2가지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제안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Ⅲ. 음악교과서의 방향

1. 구성 체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는 대부분 단원 중심, 제재곡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음악에서는 음악 요소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경험하게 해야 하므로 개념적 접근법에 의한 개념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제재곡 중심은 수업 모형의 도출과 수업 자료의 교환 등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공통적 교육 활동에 유용한 면이 있지만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 아닌 교재 중심의 수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자주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민경훈 외, 2010, p. 197). “제재곡 중심의 음악교육은 ‘결과물’에 대한 경험의 제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예술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안목을 길러 주기가 어렵다(최은식, 2002, p. 76).”

그러므로 제재곡 중심의 음악교과서에서 탈피하여 개념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개념 중심의 음악 지도란 음악수업 내내 한 가지 음악개념만을 익히기 위해 모든 음악학습 활동들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수업 하나가 끝나면 그 수업에서 배웠던 음악개념을 다른 음악에서도 찾아낼 수 있게 된다(임미경 외, 2002, p. 249).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음악요소영역이 등장하면서 음악교과서의 구성체제도 음악요소학습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1970년대에는 음악요소영역이 정착하면서 실버 버데트에서 출판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실버 버데트 음악(Silver Burdett Music, 1976)」의 단원을 리듬, 가락, 화성, 음색, 셈여림 등 음악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문경숙, 2006). 음악요소 중심의 단원 구성은 200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 개발될 교과서는 현대음악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음악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각 요소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서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Goals 2000의 기본방향 중 하나가 포괄적인 음악교육과정의 운영이다(MENC, 1994a). 포괄적인 음악교육과정은 다양한 음악수업형태로

실행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 음악성의 개발도 의미한다. 포괄적 음악성은 교수법이라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음악의 특정 기술이나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음악을 보고자 하는 노력,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바라보는 태도이다(임미경 외, 2010, p. 307). 음악교과서도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에 맞추어 구성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포괄적 음악성 개발을 위한 음악의 여러 가지 영역의 활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 박힌 형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구성 방식으로 교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음악교과서를 펼치면 왼쪽 면은 제재곡, 오른쪽 면은 활동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서 왼쪽 활동, 오른쪽 제재곡 또는 양쪽 모두 제재곡만 제시하거나 활동만 제시하고,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양쪽 면 윗부분에 제재곡을 펼치고 아랫부분에 활동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배열방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활동 영역도 항상 제재곡을 제시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곡을 수반하지 않고 요소의 이해만 할 수 있는 활동만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배합방식으로 수업형태를 구상 할 수 있게 교과서의 구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교과서 사용 시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제재곡과 활동의 난이도를 구별해서 제시한다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음악수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 포괄적 음악성은 음악의 다양한 영역을 고르게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균형 있는 음악영역의 배분으로 음악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2.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에서는 학습의 과정, 탐구과정, 통합적 사고력 신장을 중시하고 학습과정 중심의 단원 전개 및 체제의 창의적 구안과 실생활에 응용 가능하도록 실용성, 유용성을 중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 3).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다.

교육의 목적이 진실과 아름다움의 추구, 잠재적 능력 개발,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음악은 교육의 일환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진실을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Lehman, 2002). “예술은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독특한 즐거움의 원천이고 표현을 위한 발산 수단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연결시키는 수단이다(Lowther, 2010, p. 40).” 그러므로 학생의 생활경험을 반영한 동기 유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음악교과서를 편찬한다면 학생들은 얼마든지 음악교과서로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구성주의 이론은 피아제와 신-피아제, 비고츠키 이론에 기초하여 능동적인 지식 구성을 강조한 이론이다(안재신 외, 2002, p. 11, 재인용). 구성주의 접근에 기초한 음악교육은 학생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해서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음악을 자연스럽게 통합시키고 경험하게 한다.

미국의 학교음악 프로그램에서도 학생의 음악적 능력 개발 기회의 제공 중 하나가 ‘음악에 대한 참여’이다(MENC, 1994b). 학생들은 지속적이면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학습을 학생 자신의 내적 반추와 지식과 의미의 능동적인 재구성을 통한 지식의 구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동기와 취향을 고려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강숙희, 2001).

그러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임 중심의 활동이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음악수업에 게임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을 학습을 즐기면서 배우는 놀이과정으로 인식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미숙, 2003, p. 10). 음악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은 음악에 관한 게임과 음악적 게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음악에 관한 게임은 음악적 개념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음악적 게임은 음악을 이용

해서 하는 게임이다(Tillman, 1995).

그러므로 음악교과서의 지면이 할애하는 한 또는 가능한 기술적 역량과 편집의 묘미를 발휘해서 다양한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조직해야 하며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음악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내용 제시에 있어서 정통적인 음악수업에 기반을 두면서 학습을 즐기면서 배우는 놀이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 요소(만화, 그림, 사진 등)를 활용해야 한다.

탱글우드 심포지움에서 언급했던 테크놀로지가 지금은 모든 음악교육자들에게 친숙하게 되어 있고 그 발달에 안정감을 느낀다(Mark, 1992).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음악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수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한다(이에스더, 2002, p. 129).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테크놀로지가 더욱 더 점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고 있다(Mark, 2000). 그러나 각 매체의 영향력은 내용의 질, 매체, 매체전문가가 사용한 기술의 결합에 의해 달라진다(England & Finny, 1999). 그러므로 음악교과서가 이러한 테크놀로지, 즉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 확대 및 적극적인 참여가 용이하게 된다.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준비된 마음으로부터 점차 음악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일이 중요하고 주변에서 음악을 접하는 기회에 단지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직접 음악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배워야 한다고 명시한다(조순이, 2004, p. 233, 재인용).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능동적인 수업 활동은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활동 중심의 구성 체제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의 능동적인 경험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음악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양상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음악문헌도 제공해야한다. 학교음악프로그램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것이 제공되어야 한다((Abeles 외, 1984, p. 274).” 음악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

화, 믿음, 인류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과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통하여 다양성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게 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p. 57).

그러므로 제재곡의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과 대중성을 반영한 곡을 선택하여야 한다. 50년 전 교과서에도 있고 30년 전 교과서에도 있는 곡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가르쳐 진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명곡이라면 세월이 흘러도 당연하게 배워야 하겠지만 한두곡도 아니고 그러한 곡들이 교과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의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악곡들과 연계된 활동들은 학생의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길러 줄 수 있으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창의적 자세를 확립하게 해준다.

음악의 생활화를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음악을 발굴하고 세계화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민첩한 행동력과 추진력을 동원해서 현장감 있고 역동적인 직접 경험을 하게 하는 악곡이나 민속음악자료를 개발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미국의 학교음악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능력 개발 기회 제공 중 하나가 ‘다양한 음악 양식, 문화 장르를 포함하는 음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이다(MENC, 1994b).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음악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의 문화를 존중하며, 상호 간의 음악을 함께 공유하면서 즐기는 태도는 국제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다문화 음악교육은 필요하다(민경훈 외, 2010, p. 145).

그러므로 학교 음악수업의 중심적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적절한 소재와 접근 방안이 들어 있어야 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음악을 소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여러 문화권의 음악들을 음악수업의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음악의 이해가 어느 한 문화권에 집중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음악 이해의 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교육에서 다문화적 접근이라고 강조하여 표현할 때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국의 음악 및 서양의 예술음악 이외의 음악을 문화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주대창, 조효임, 2004, p. 264-266).

IV. 결론 및 제언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음악교과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논의는 음악교육 전문가들의 영원한 숙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문과 참고자료를 토대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해 음악교과서의 방향에서 논의한 결과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그 하위 영역에서 세분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좋은 학습 자료로 효율성 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모든 음악교사들의 희망이며 목표이다. 대표적인 학습 자료인 음악교과서에 가르칠 내용, 활동, 자료, 평가도구까지 모두 포함된다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어떻게 음악교과서가 구성되어야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가를 구상하는 것이었다.

음악교과서 개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교육과정의 이념을 구현해야하고 포괄적이며 순차적인 지도단계를 모든 음악수업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재곡의 선정이다. 제재곡이 교육과정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곡과 활동으로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음악교육론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미래의 음악교과서 발전 방향을 4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단원 구성을 개념적 접근법을 기초로 구성해야 한다. 음악적 구조와 개념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으므로 제재곡 중심이 아닌 음악요소 중심으로 단원 구성을 해야만 음악교육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둘째, 포괄적 음악성 개발을 위하여 교과서 구성 체제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음악적 능력을 배양하고 발휘할 수 있는 포괄적 음악성을 고려해서 정형화된 활동과 고정적인 관점을 지양하는 음악교과서

로 구성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능동적 참여를 장려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멀티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지면상의 교과서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제시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적 접근법에 의한 새로운 제재곡을 발굴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제재곡을 음악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고전음악과 한국의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악을 골고루 교과서에서 다루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문화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앞으로 개발되는 음악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한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악곡과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숙희 (2001). 인터넷과 수업. 서울: 교육과학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덕원 (2004). 학교 음악 교육: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27, 27-64.
- 권덕원 외 (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현정 (2009).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제재곡 및 학습 내용 선정의 방향 모색. *국악교육연구*, 3(1), 5-34.
- 길애경 & 임미경 (2008). *초등음악지도법*. 서울: 수문당.
- 김미숙 (2003). 음악수업에서의 게임 활용. *음악교육연구*, 24, 1-19.
- 문경숙 (2006). 미국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를 통해본 음악요소영역의 변천 과정: 1940년대-1970년대. *음악교육연구*, 31, 39-62.
- 문경숙 (2007). 미국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교재곡의 실상 연구. *음악과 문화*, 18, 21-47.
- 민경훈 외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안재신 외 (2002).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에스더 (2002). 음악교육에서의 technology 활용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공학*, 1, 1-139.
- 이흥수 (2001). 가창교재곡의 한국화 방안. *음악교육연구*, 21, 1-16.
- 임미경 외 (2002).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벨로체.
- 임미경 외 (2010).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 조순이 (2004). 독일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Musikunterricht (음악수업)”의 내용체계 분석 연구. *음악교육연구*, 27, 227-256.
- 주대창 & 조효임 (2004).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I)-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음악연구*, 제 33집, 한국음악학회.
- 최은식 (2002). 지식기반사회의 음악교육. *음악교육공학*, 1, 71-8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서울: 저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서울: 저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초·중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서울: 저자.
- Apfelstadt, H. (2002). First Things First: Selecting Repertoire. *Music Educators Journal*, 87(1), 19-23.
- England, elaine & Finney, Andy (1999). Managing multimedia.

- Edinburgh Gate, England: Addison Wesley.
- Abeles, H. et al. (1984).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N.Y.: Shirmer Boos.
- Hinckley, J. (2000). What next?. *Music Educators Journal*, 86(5). 6-8.
- Hinckley, J. (2000). Why vision 2020?. *Music Educators Journal*, 86(5), 21-24.
- Hoffer, C. R. (2001). 음악교사론.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ehman, P. (2002). A Personal Perspective. *Music Educators Journal*, 88(5), 47-51.
- Leonhard, C. and R. W. House (1992).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owther, G. E. (2010).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ic standards and England's national music curriculum. Master's thesis.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 Mark, M. L. (1992). 현대의 음악교육. 이홍수 외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Mark, M. L. (2000). From Tanglewood to Tallahassee in 32 years. *Music Educators Journal*, 80(5). 25-28.
-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94a). National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what every young America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in the arts. Reston, VA: Author.
-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94b). *The school music program: A new vision*. Reston, VA: Author.
- Reynolds, H. R. (2000). Repertoire is the Curriculum, *Music Educators Journal*, 87(1), 31-33.
- Silver Burdett Pearson Education, Inc. (1976). Silver Burdett music. Morristown, New Jersey: Silver Burdett Company.
- Silver Burdett (2005). Making music: Glenview, IL: Author.
- Tillman, J. (1995). 놀이를 통한 음악학습. 허순희 역. 서울: 도서출판 학지사.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Music Textbook

Kim, Mi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music textbooks based on theory of music education.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with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usic textbooks. The direction was classified in two categories; structure of organization and selection/organization of contents. The followings directions were suggested; 1) unit organization based on the conceptualism; 2) free-style organization for comprehensive musicianship; 3)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based on constructivism; 4) discovery new music through multiculturalism.

key words: music textbook, development of textbook, content of music textbook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일: 10월 30일(11월 10일), 게재확정일: 11월 25일